

“악과 싸워 승리하자”

사순시기를 보내는 우리는 오늘 참으로 기쁜 소식을 듣는다. 오늘의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광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 곳,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신의 미소함을 절감하는 곳, 하나님의 현존이 체험되지 않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사십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 상태였고,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처해 계셨다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힘으로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신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겪는 내적 혼란과 결단의 어려움을 몸소 겪으셨다. 극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유혹에 빠지지 않으셨던 사건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이라면 누구나 유혹에 대처하는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

유혹이란 말은 ‘끼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이란 뜻이다. 악마가 우리를 유혹한다면 그 목적은 일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게 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잊고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악마는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악마도 우리 각자에게 다가와 유혹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악마의 유혹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잊고,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도록 이끈다는 점이다.

악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조작하도록, 이용하고 파괴하도록 유혹한다. 악마는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믿도록 유혹한다. 악마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혹한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순 시기를 보내면서 악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자. 그리고 예수님처럼 악과 싸워 승리하는 사순시기를 보내자.

글/ 서동조(유스티노) 신부

교회에서 파견된 자

평신도는 교회로부터 파견된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평신도는 자신이 얼마나 교회사명에 충실하고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고 자신의 삶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들어내도록

자신을 닦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헌장 31항에는 평신도를 세상 한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규정하고 평신도가 자신의 삶터에서 그리스도적 삶을 들어내어 이웃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는 큰 것에서 부터가 아닌 작은 선택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자가 어느 날부터 순명의 정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자신을 내어 놓는 봉헌의 정신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생겨나는 분심.....

몇 번이나 신앙생활을 놓아버리고 싶은 충동과 끈질기게 다투기도 하였지만 그때마다 자신이 선택한 신앙을 더 이상 유혹에 빠지게 하지 않고 곳곳하게 지켜 신앙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드린 기도의 덕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유혹의 시험대에도 오르지만 자신의 부족한 신념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더욱 투철하고 확고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사회적으로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평신도이면서도 수도자의 삶처럼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과 좋은 직장을 내던지고 낙후한 곳에서 불쌍한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게 사랑이 많아서일까요?

그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면 분명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을 내어놓는 봉헌의 정신이 생겨났기

때문에 또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참사랑과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파견된 교회, 자신 안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 위해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잘 계획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뜻에는 변수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명의 정신과 자기를 내어놓는 봉헌의 정신과 자신의 개인적 욕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정신을 살려낼 때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매 미사 때마다 교회에서 자신의 삶터로 파견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뜻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자신이 교회로부터 파견된 자임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실천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원교구 인터넷에서

사순 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주님 만찬 성목요일’의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참회와 보속 그리고 회생의 정신으로 지낼 것을 권고한다.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킨다. 금식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 지키며, 금육은 만 14세부터 죽을 때까지 지킨다. 그리고 재의 색깔은 회개와 속죄의 상징인 자색으로 바뀌며, 전례에서 ‘알렐루야’와 ‘대영광송’은 생략된다.

초기 원시 교회에서는 사순 시기가 없었고,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파스카 삼일’ 예식만 있었다. 박해 시기를 거치면서 부활 대축일의 준비를 위해 회개와 보속의 기간이 생겨났다. 사순 시기가 40일로 정착된 것은 니케아 공의회(325년)의 결정이며, ‘재의 수요일’부터 시작한 것은 6세기 말, 그레고리오 1세 교황 때부터였다. 특별히 이 시기는 예비 신자들이 세례를

준비하는 마지막 기간이었으므로 더욱 경건하게 지냈다.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기간’을 상징한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 40일 동안 재를 지켰고, 엘리야 예언자도 ‘호렘 산’에 갈 때 40일을 걸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며 기도하신 뒤 공생활을 시작하셨다.

사순 시기 동안 회생과 봉사의 생활을 하는 것은 교회의 오랜 전통이다. 신자들은 이 기간 동안 지난날의 잘못을 돌아보며 계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 스스로 극기와 절제의 생활을 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자주 마련한다. 이렇게 사순 시기의 특별한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 특별히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침으로써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하고, 생활 속에 자신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된다.

사제는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자색 재의’를 입는다. 미사 전에 주례자는 재를 축복하여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한다. 사람의 출발이 흙이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재의 수요일’은 이 예식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재는 지난해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축복했던 나뭇가지를 태운 것이다. ‘재를 머리에 뿌리는 것’은 전통적인 참회의 상징이다. 오늘은 금식재와 금육재를 함께 지킨다.

본당발전을 위한 기도

○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주보성인인 성 정하상 바오로의 모범을 본받아 열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 주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의 보살핌 속에 하나되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가정과 이웃, 지역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 본당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주님의 기쁜소식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본 당 소 식

오늘은 사순 시기의 첫 주일입니다. 복음의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더욱 절실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앞날은 돈과 물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가 가능해집니다. 사순 시기 동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 십자가의 길 기도 지향 변경 안내

그동안 공동체를 위한 기도지향으로 바쳐오던 십자가의 길이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다가올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창화와 보속 그리고 봉사와 희생의 정신으로 지낼 것을 다짐하는 기도지향으로 오늘부터 바꿉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길 선도자는 제단 십자가 고상 앞에서 큰절 후 시작 할 때 사순시기에 맞는 기도지향을 한 후 십자가의 길을 선도 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자 명단

2월 21일- 관리분과장 이명희 스테파노

2월 28일- 워털루 1구역장 류무열 레오비노

3월 7일- 워털루 2구역장 이동기 테오도로)

*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지향: 각 구역별로

◎ 사목위원 변경

재정분과장을 맡아 봉사해 온 고영호 형제가 개인사정으로 사임했습니다. 아울러 잔무 및 업무 인수인계 관계로 3월 7일 까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책임신부님이신 고 안드레아 신부님의 명예 따라 새로이 백옥현 안셀모 형제가 임명되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3월 사목회의 안내

▶2월 28일 주일 미사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사목위원과 구역장, 단체장도 참석바랍니다)

◎ 2010년도 꾸르실리스따 지도자 학교

▶일시;2월 27일(토) 10:30-17:00

▶장 소 ; 한맘 성당 세미나실

▶참가비 ; \$10/day

▶문 의 : 김현태 울뜨레야 간사

◎ 청소년부 흥피안내

청소년부를 위한 공간입니다.

주소 : <http://kwpaul.com/youth>

◎ 첫영성체반 모집 안내

대상은 Grade 3 학년 이상인 학생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공부할 예정입니다.

▶문의: 이은희 이벳따 자매 ☎ 519-579-0154

◎ 교육관에 비치할 영성 도서나 CD를 모집합니다.

담당 : 사목총무 한택중

◎ 안내/헌금 담당

▶3월 : 워털루 2 구역

▶4월 : 워털루 3 구역

2인 1조로 구성하시어 미사 준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2월 14일 봉헌금 내역
주일헌금 : \$ 720.25
교 무 금 : \$ 20.00
감 사 금 : \$
특 별 : \$ 20.00
성전건립 : \$ 135.00
성모님동산 (누계):금주\$105 (\$5790.00)
합 계 : \$ 895.25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수 오전 10시

금 오후 8시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10개월, 통신 교리는 1개월 보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10-08호

2010. 2. 21.

사순 제 1주일

해설 김 손권

차주 해설 최 우석

성 가

입 당 (118) 골고타 언덕

봉 헌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성 체 (162) 성체 성혈 그 신비

퇴 장 (56) 목자를 따라서

화 답 송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알렐루야

영성체후 묵상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마의 유혹은 이러한 절제를 파괴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사순 시기 동안 우리는 어디에서나 인내를 익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신앙인은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니면 결국은 부활의 은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제와 극기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모두 유혹입니다

독 서

2월 21일

장명길

장용경

2월 28일

이명희

이상희

봉 헌

2월 21일

안정흠

안미옥

2월 28일

장명길

장용경

복 사

2월 21일

최예슬

강수현

2월 28일

류지현

김건우